몰라서 방치하는 지자체 상징식물

이미지 제고, 생태관광, 경제활성화 활용 가능성 외면

김 원 학 (자연환경국민신탁연구원)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모르겠지만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그 지역을 상징하는 꽃과 나무를 두고 있다. 물론 없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갖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1960년대 후반에 그 지방의 전통, 전설, 문화, 향토 고유성 등을 참작해 상징식물을 결정했다. 그 지역의 자연환경, 천연물 등 지자체를 대표하거나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식물이 대상이다.

지자체를 상징하는 꽃과 나무, 즉 상징식물은 지자체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 활용되는 것은 물론 생물자원을 이용한 경제활성화 정책에도 쓰인다. 생태관광에도 적극 이용된다.

포천시의 경우, 포천구절초, 포천 직두리 부부송(천연기념물 제460호)를 시화와 시목으로 지정해, 지자체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죽세공품이 유명한 담양은 대나무를 활용한 생태관광이 돋보인다.

포천이나 담양만 두고 보면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꽃과 나무를 상징식물로 지정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다. 그러나 현실은 예상과 어긋난다. 상당수 지자체의 상징식물 선정이 생뚱맞기 때문이다.

지역적 특색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 상징종의 의미를 바래게 하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로 생태관광을 활발하게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도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생물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 은행나무, 소나무, 철쭉 등 중복 지정 심각

2010년 국립생물자원관이 전국의 26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징종 지정 현황을 조사했더니 249곳이 상징종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등장한 상징식물을 세어보니, 상징꽃과 상징나무가 각각 38종이었다. 대충 계산해 봐도 6개 지자체가 같은 꽃과 나무를 그 지역 대표 상징식물로 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나마 중복되지 않은 식물을 상징 식물로 지정하고 있는 20개(꽃)~21개(나무) 지자체를 제외하면 하나의 식물을 상징종으로 중복 사용하는 지자체가 10곳 이상에 이른다.

특히 은행나무의 경우 72개 지자체가 지역의 대표 나무로 꼽고 있으며, 소나무와 은행나무를 상징나무로 지정한 지자체도 각각 45곳, 37곳에 이른다.

상징꽃도 상징나무와 별반 다르지 않아서 철쭉(42곳), 개나리(34곳), 동백꽃(22곳) 등은 20개 이상의 지자체가 중복으로 지정해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의 상징식물이 겹치는 것은 상징꽃이나 상징나무 지정을 단순한 요식행위 정도로 여기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닌가 싶다. 그저 많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물을 상징식물로 선정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 2006년 산림청이 실시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사

람들이 좋아하는 나무는 소나무(66.1%)를 비롯해 은행나무(9.1%), 단풍나무(3.2%), 느티나무(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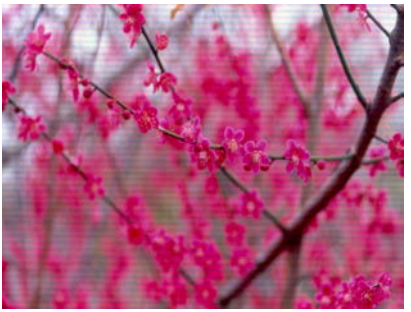
국민들이 좋아하는 나무와 지자체의 상징물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식 조사에서 3위를 기록한 단풍나무를 상징나무로 지정한 곳에 3곳에 불과한 것이 오히려 의아할 뿐이다.

좋아하는 꽃나무에 대한 조사에서는 벚나무(22.9%), 목련(11.5%), 무궁화(8.5%), 진달래(7.5%)로 응답했는데, 목련과 진달래는 각각 18곳과 17곳에서 상징꽃으로 지정하고 있다.

벚나무는 2곳에 불과한데 일본을 상징하는 꽃이라는 점에서, 무궁화는 우리나라의 국화라는 점에서 상징꽃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우리나라 국민이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식물도 상징식물로 많이 지정되는데, 사군자에 속하는 매화(10곳), 국화(15곳), 대나무(3곳)의 중복이 눈에 띈다.

이밖에 조선 초기 강희안이 지은 <양화소록>에 당시 한국인이 좋아했던 꽃으로 알려진 매화, 배롱나무(8곳), 동백(22곳), 모란(3곳), 목화, 연꽃(3곳) 등도 지자체가 선호하는 상징식물로 선정됐다.



《홍매》

《진달래》

∵ 외래종, 오기 등 교체작업 서둘러야

지자체가 상징식물 선정에 무신경하다는 점은 단순히 중복된다는 이유뿐만이 아니다. 상징식물이 그 지역을 대표하지는 못할망정 외래종의 비중이 너무 높기도 하다.

상징꽃 가운데 장미,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이 대표적인 외래종이며, 상징나무 중에는 은행나무와 목백합(튤립나무)을 외래종으로 꼽을 수 있다.

지자체가 상징식물을 외래종으로 택했다고 해서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자생종을 적극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과거에 포함됐던 튤립, 영산홍과 같은 식물이 상징식물의 대상에서 서서히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의 상징식물 지정의 문제는 중복이나 외래종 선정에만 그치지 않는다.

일부 지자체는 백일홍(배롱나무 권장), 산목련(함박꽃나무 권장), 함박꽃(작약 권장) 등과 같은 잘못된 국명을 사용하고 있다. 목백합 또한 튤립나무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련의 경우, 중국 원산으로 외래종인 백목련과 우리나라 자생식물인 목련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철쭉이라 적고 있지만 홈페이지의 사진으로 산철쭉이나 영산홍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목련의 사진이 함박꽃

《개나리》

《대나무》

나무인 경우도 있다.

백일홍(배롱나무)이나 코스모스를 자생한다고 잘못 설명한 지자체가 발견할 수 있다.

∵ 정부, 지자체 상징식물 개선작업 꾸준히 전개

이처럼 지자체 상징물의 문제가 꾸준하게 대두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나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시 · 군 단위 이상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자생생물을 이용해 각 지자체의 지역적 특색을 잘 반영하는 지자체 상징종을 지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상징종으로 잘못된 이름을 사용하거나, 지역적 특색을 잘 나타내지 못하는 상징생물을 지정 ·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바른 상징종 사용을 위한 전문가적 자문을 통해 새로운 상징종 변경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자체별로 생태적 · 경제적 가치 활용이 가능한 지역적 특색을 잘 반영하는 생물종의 탐색 및 개발, 지정 지자체 상징종을 이용한 지자체 마스코트 개발 및 행사 활용 등 문화소재 활용 극대화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관광 등으로 개발할 경우, 우리나라 자생생물에 관한 관심 고취 및 이미지 제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자체 또한 그동안 상징식물 교체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경기 수원시의 경우, 시의 상징나무를 소나무로, 의왕시는 상징꽃을 개나리에서 철쭉으로, 충북 충주시는 상징식물을 매화와 은행나무에서 국화와 사과나무로 교체했다. 충남 금산군도 목백일홍과 은행나무를 모란과 소나무로 바꿨다.

전북 장수군과 강원 양양군 또한 상징목을 은행나무에서 소나무로 교체했다. 양양군은 군화를 천엽황매화에서 해당화로 새롭게 선정했다.

경남 마산시는 시화인 장미가 시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시민 의견조사를 통해 국화로 변경했다는데,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창원시의 상징꽃이었던 벚꽃으로 조정했다.

《반송》

《왕벚나무》

∵ 주민의견 수렴 후 추진 바람직

이처럼 지자체의 상징물 개선작업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주민들 모두 상징물 교체작업에 호의적인 것은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지자체가 하찮은 일에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자체가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체질 개선 등 내실 있는 변화는 뒷전에 두고, 외장만 바꾸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 포항시의 경우, 지역 내 한 시민단체의 진정을 받아들여 시화와 시목인 장미와 해송을 향토성이 강한 해국과 모감주나무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의 반대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교체를 하지 말자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공무원의 체질 개선이나 대민 서비스 개선 등 더 효율적인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나, 상징물 교체가 단체장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그것을 말해준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진행한다면 시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다. 상징식물을 교체했음에도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완전히 불식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의 경우, 소나무가 수원을 대표할 수 있는 식물이지만 중복의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여서 앞서 상징목을 교체한 지자체를 살펴봐도 결국 소나무가 결과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상징식물의 개선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차나무》

《철쭉》

∵ 자생식물과 역사성 등 반영해야

그렇다면 어떤 식물을 상징식물로 선정하는 것이 좋을까.

아무래도 우리의 자생식물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식물이지만 지자체 상징식물의 대상에서 외면 받고 있는 금강초롱꽃과 구상나무와 같은 식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울릉도만 하더라도 섬말나리, 섬초롱꽃과 같이 지역을 대표하는 식물이

있음에도 동백꽃과 후박나무를 시화와 시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서울의 서울제비꽃, 지리산의 노각나무, 속리산 망개나무 등도 세계에 자랑할 만한 고유식물인 만큼 활용할 가치가 있는 식물로 여겨진다.

지역 특산의 자생식물뿐만 아니라 역사적 기록에 나타나는 식물을 자연상징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조선 중기의 학자 성현이 지은 <용재총화>에는 강원 정선의 배나무, 경남 밀양의 밤나무, 함양의 감나무, 전남 구례의 동백나무 등을 풍토나무로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

뿐만 아니라 과거 기록이나 전설에서도 상징식물 선정의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신라 성덕왕 때 수로부인이 강릉 태수인 그의 남편을 따라 가는 길에, 돌벼랑에 핀 철쭉꽃을 한 노인이 꺾어 바치면서 불렀다는 헌화가는 철쭉의 상징식물 활용 가능성을 말해준다.

고려 때부터 오얏(리) 나무로 소문난 서울 삼선교 일대의 오얏골은 서울시와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남산의 소나무, 잠실의 뽕나무, 살곶이의 버드나무는 모두 역사와 전설이 스민 전통의 나무들이다.

복사골로 유명한 부천에서 복사나무 심기 운동이 벌어졌듯이 전국 도처에서 풍토나무, 전설나무, 역사나무 등 연고를 찾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지역적 특색에 맞는 지자체 상징종의 효율적 관리와 현명한 활용은 미래 그린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생태관광 활성화 등 생물자원을 이용한 지역경제 부흥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녹차의 고장 전남 보성군에는 연간 6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군은 녹차를 활용해 연간 5,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한 녹차해수탕을 개장해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 웰빙식품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녹차의 상품화를 통해 생태관광과 지역 경제 부흥, 이미지 제고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보성군의 이웃 지역인 강진군이 녹차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에 나서면서 지자체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성과

강진의 논란은 역설적으로 지자체의 상징식물이 결코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은행》